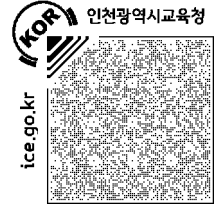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6-0136



2026 여름 제45호

# 학습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 읽건쓰미로

##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천교육과 학생성공시대 완성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간 인천교육은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공약이행률 99.1%, 3년 연속 SA등급이라는 성과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은 인천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와 참여였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성공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읽건쓰미를 기반으로 한 기본교육 완전책임제, 인간중심 AI융합교육,  
생태·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세계로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  
진로·진학·직업교육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교육, 교육균형발전까지  
약속드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천교육은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따뜻한 교육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읽건쓰미를 중심으로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 완성을 향한 인천교육의 걸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 특집

- 04 읽건쓰시 예술 학생성공등대
- 06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  
맘껏 놀아요! 준비~땅
- 10 인천교육, AI 넘어 AGI 시대로  
'사람·AI·사람' 잇는  
교육 대전환 본격화
- 12 생각하며 행동하기를  
배우는 교육,  
아이플라토(I-PLATO)
- 16 더 가까운 교육 서비스,  
검단·영종교육지원청  
개청을 향한 첫걸음

## 정보

- 18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2026 인천 교육복지사업'
- 22 학생 역량은 UP!  
사교육 부담은 DOWN!  
인천형 초3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 24 기초학력 보장 점·선·면 책임교육,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로 연다
- 26 우리 아이의 꿈에 날개를 다는 시간,  
인천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캠페인

- 28 독서국가! 독서인천!!  
2026년 제3회  
읽건쓰 출판전시회 개최
- 32 걸을 지키고, 길을 다지며  
함께 가는 따뜻한 동행,  
인천 학생맞춤통합지원
- 35 학교와 가정이 함께 빛는  
아이들의 내일,  
'학부모 학교참여'의 힘
- 38 교육 가족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학교돌보기

- 40 존중과 배려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인천경명초등학교,  
'교육활동 보호의 달' 운영
- 4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  
섬마을 유치원의  
여름이야기 속으로!
- 45 가치 담은(談恩)  
강화 Vengers(벤저스)의  
터·무늬 잇는 탐험

## 공감

- 48 그 계절 우리는

**발행일** 2026년 6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조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권영남  
**기획 및 편집** 김은진, 윤주영

**편집위원** 김미현, 김종완, 김진영, 박운재,  
유철민, 이화은  
**사진** 변상호, 이주한, 서주희, 이상훈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소식지 문의** 032-420-8129  
**누리집** www.ice.go.kr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6-0136  
**디자인·인쇄** 라우드디자인  
(T.032-873-2626)

# 읽견쓰 AI 예술 학생성공등대

함유선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 성인 읽견쓰 루틴 일상화

### 고등 AI 주도적 활용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하기  
AI를 활용해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

창의적 글쓰기

#### 읽견쓰시 교육원리

- H 사람 A AI H 사람
- 읽기 한발 먼저 생각하기
- 읽기 나의 말로 이해하기
- 쓰기 직접 쓰고 완성하기

### 초5~중3 통제된 환경에서 AI 활용

AI 답변 검증하고 비판하기  
교사 안내에 따라 AI 올바르게 사용하기

비판적 읽기·쓰기

### 초3~초4 독립적 사고 형성과 AI 이해

자기 생각 표현하기  
AI 과의존 방지 및 윤리적 태도 기르기

긴 글쓰기

논리적 사고 형성

통합적 문해력 형성  
생각을 체계적으로 구성

### 유~초2 독서골든타임으로 읽기 습관 형성

소리 내어 함께 읽기  
읽고 이해한 내용 말하고 쓰기  
하루 한 시간 가족과 책읽기

기본 다지기 교육

연필잡기



### 0~4세 감각·신체 놀이 경험으로 기초 형성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림책 즐기기  
오감으로 경험하고 그림·몸짓으로 표현하기

예술교육

손글씨 발달 교육

온몸놀이

몸으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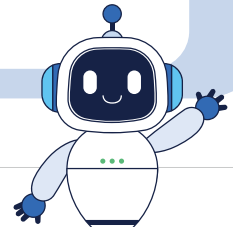
# 워컨쓰시 <sup>예술</sup> 학생성공등대

“ **성장발달 단계별 워컨쓰시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의 불을 밝힙니다.** ”

교육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검증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의 주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천교육은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기술에 휩쓸리는 교육이 아닌, **워컨쓰를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와 예술적 감수성**을 통해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교육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성장발달 단계별 워컨쓰시 학생성공등대'는 우리 아이들이 **시와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에르디토(Erudito)\***로 성장하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림의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워컨쓰시는 우리 아이들이 **워컨쓰로 인간다움과 자기주도성을 갖추고 시를 활용하여 삶의 힘을 기르도록 이끄는 등대로,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할 것입니다.**

\*에르디토(Erudito): 스페인어로, '학식 있는 사람'을 뜻함



## 성장발달 단계별 로드맵



**워컨쓰 루틴 일상화** **워컨쓰 평생학습실천가**

15x3 삶의 힘을 키우는 워컨쓰기(쓰기)의 하루 45분 루틴으로 평생학습실천가로 살아갑니다.



**AI 주도적 활용** **창의적 글쓰기**

H-A-H 교육원리를 심화 적용하여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합니다. 친구들과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AI 활용** **비판적 읽기-쓰기**

교사 안내에 따라 AI도구를 체험하며 H-A-H 교육원리를 실천합니다. AI의 답변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비판적 읽기-쓰기'를 통해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독립적 사고 형성과 AI 이해** **긴 글쓰기**

초4는 '긴 글쓰기'를 배우는 시기로, 자기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고 논리적 사고를 형성합니다. 통합적 문해력\*을 길러 생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AI를 이해하고 AI 과의존 방지 및 윤리적 태도를 기릅니다.

\*통합적 문해력: 언어 기초적 차원(언어, 시각, 청각, 몸짓 등), 정보 디지털 차원(정보, 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통계), 기술 컴퓨팅 차원(AI, 알고리즘, 코드), 사회 문화적 차원(비판적, 문화, 감정, 금융, 건강) 등을 통합하는 문해력



**독서골든타임으로 읽기 습관 형성** **기본 다지기 교육**

5-9세는 읽기 습관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하루 한 시간 가족과 휴대폰을 끄고 책을 읽는 가정독서혁명을 실천합니다. 소리 내어 함께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하고, 연필을 잡으며 직접 써봅니다. 이와 더불어 '손끝·발끝 교육'으로 예술적 감수성도 함께 키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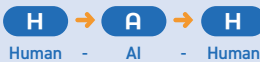


**감각·신체 놀이 경험으로 기초 형성** **온몸놀이**

이 시기는 '온몸놀이'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책을 즐기며, 오감으로 경험하고 그림과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한발 먼저 생각하고 시를 활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은 뒤 인간이 직접 쓰고 완성합니다.**

### 워컨쓰시 교육원리



**겪기** 한발 먼저 생각하기



**읽기** 나의말로 정리하기



**쓰기** 직접 쓰고 완성하기



#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 맘껏 놀아요! 준비~땅

김종완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어린이의 마음을 닮은 푸른 하늘 아래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종합운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설렘 가득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제3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는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 맘껏 놀아요. 준비~땅!'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천 관내 유·초등학생과 가족 약 15,000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놀이 축제로 펼쳐졌다.



## 운동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어느덧 세 번째를 맞이한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행사의 무대를 종합운동장으로 일원화해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기념식부터 81개의 놀이 부스, 야외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탁 트인 운동장에서 진행하며, 아이들이 장애물 없는 넓은 광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상상하며, 관람객이 아닌 놀이의 주체로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계양유치원 어린이들의 순수한 오카리나 선율과 인천 은봉초등학교 학생들의 힘찬 치어리딩으로 문을 연 기념식은 축제의 열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이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교육적 의지를 전했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서 울려 퍼진 “준비~ 땡!” 구호와 함께 터진 화려한 축포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마음껏 놀아도 좋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81가지의 즐거움

운동장을 가득 채운 81개의 놀이 부스는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세대 공감의 장이었다. ‘세대공감 존’에서는 떡메치기 체험과 전통 놀이 대결을 통해 부모와 아이 사이의 벽을 허물었고, ‘함께어울림 존’에서는 인성 교육과 연계된 협동 놀이를 통해 처음 본 친구와도 손을 맞잡으며 배려와 소통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미래이음 존’에서는 에듀테크와 탄소중립 등 시대적 가치를 담은 놀이가 펼쳐져 아이들이 즐거움 속에서 내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올해는 인기 크리에이터 ‘김켈리’와의 팬 사인회 및 포토 타임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화면 속 주인공을 직접 마주한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설렘 가득한 기다림은 축제가 끝날 때까지 훈훈한 풍경을 자아냈다.





## 함께 만든 축제, 함께 나누는 행복



이번 축제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협력이 있었다. 교육청, 놀자학교 선생님들과 경인교육대학교 예비 선생님들, 놀이교육 교사 연구회, 그리고 안전을 책임진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응급 대응 인력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정오부터 시작된 야외무대 공연은 댄스, 마술, 명랑 운동회, 랜덤 플레이 댄스로 이어지며 축제에 생동감을 더했다. 마지막 순서인 '인연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수상작 상영회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세상을 함께 나누며 깊은 울림을 주었고, 오는 11월에 열릴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뜻깊은 마침표를 찍었다.



**놀이는 배움이고,  
 관계이며, 성장입니다**

2024년 7,000명으로 시작해 해마다 규모를 키워 온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는 이제 인천 시민에게 어린이날의 소중한 약속으로 자리 잡았다. 축제에 참여한 한 학부모님은 “아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땀 흘리며 웃다 보니, 아이보다 제가 더 위로받고 힐링 되는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어린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다. 이번 축제는 우리 아이들이 타인과 조율하고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가는 성장 과정을 운동장 위에서 마음껏 그려낸 자리였다.

이 소중한 웃음소리가 축제의 장을 넘어 학교와 마을의 일상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2027년, 더 넓은 상상의 광장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해본다.

**“인천의 어린이 여러분, 내년에도 마음껏 놀아요!  
 준비~ 팡!”**



# 인천교육, AI 넘어 AGI 시대로 '사람·AI·사람' 잇는 교육 대전환 본격화

- 사람이 먼저 질문(H)하고, AI(A)와 함께 생각을 넓히며, 다시 사람의 판단(H)으로 완성해 가는 'H-A-H' 모델 안착
  - 2026년 AI 교육 190개교 운영 및 전국 최초 '인천 AI 교육 공동선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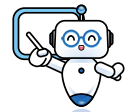
정영찬 인천광역시교육청 융합인재교육과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움과 주도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인천형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청은 사람이 먼저 질문(H)하고, AI(A)와 함께 생각을 넓히며, 다시 사람의 판단(H)으로 완성해 가는 'H-A-H(Human-AI-Human)' 모델을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 역량 강화와 생태 교육을 확장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일반인공지능(AGI) 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디지털 교육 혁신 거점, 2026년 'AI 교육 190교' 본격 가동



인천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 AI·디지털 활용 연구학교 3교 ▲ 선도학교 70교 ▲ AI 중점학교 107교 ▲ 읽견쓰시 정책학교 10교 등 총 190개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AI·디지털 교육자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며, 현장 중심의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초·중등 핵심 사업이다.



### 전국 최초 '인천 AI 교육 공동선언' 발표, 인간 중심 가치 정립



지난 3월 24일, 학생과 교사,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된 「인천 AI 교육 공동선언」은 기술 확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을 담았다. 이번 선언은 ▲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읽건쓰'를 통해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 ▲ 발달 단계에 맞는 AI 윤리와 공공성 확보 ▲ 인문·예술·과학기술이 융합된 책임 있는 AI 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읽건쓰AI 기반 교원 역량 관리체계' 구축, 교육 대전환 가속화



교사가 단순한 기술 활용자를 넘어 AI와 협업하여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 설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읽건쓰AI 교원 역량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디지털 증명서 및 교사 인증제와 본격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번 역량 체계는 교사들이 AI 기술의 단순 활용을 넘어, 인천 교육의 핵심 가치인 '읽건쓰(읽기·건기·쓰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새로운 'H-A-H(Human-AI-Human)' 교육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현재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형 성장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단계별 역량의 가시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3만여명의 현장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학교급별 수업 모델과 유형별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단계별 맞춤형 연수에 참여하게 되며, AI 교육 실천공동체를 통해 성장을 지원

받는다. 이를 통해 양성된 AI 교육 핵심 리더 그룹은 학교별 실천공동체를 중심으로 '읽건쓰AI' 기반의 수업 혁신 사례를 현장에 확산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역량 관리는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교실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읽건쓰' 연계 캠페인 확대



기술 활용만큼이나 안전한 이용 습관도 강조한다. 교육청은 '읽건쓰 AI 활용 가이드'를 배포하고, 가정 내 '디지털 프리 시간(20시~21시)' 운영과 매일 1시간 스마트폰을 끄고 종이책을 읽는 '독서 골든타임' 캠페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NIA 인천스마트심센터의 '레몬교실'(200교), ▲ 청정 프로젝트연구소의 '시소타임'(204학급), ▲ 인천테크노파크의 '찾아가는 AI-SW교육 프로그램(1,000학급(230교)), ▲ KT, KT그룹희망나눔재단 '찾아가는 AI 윤리교육'(400학급)

### 도성훈 교육감 "기술은 거들 뿐, 교육의 중심은 사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인간다움과 주도성을 갖춘 미래 가치 창출 인재를 키우는 것은 AGI 시대에도 변치 않는 핵심 과제"라며, "교사가 교육적 맥락을 설계하고 AI가 이를 뒷받침하는 인천형 미래 교육을 통해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생각하며 행동하기를 배우는 교육, 아이플라토(I-PLATO)

강대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정책특별보좌관



# I-PLATO



오늘날 학생들은 학업성취를 우선시하는 교육환경과 넘쳐나는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이미지 만들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학생들이 진정한 자신을 탐색하고, 본래적 자기로 살아갈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성장기의 학생들은 진로 선택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 폭력, 마음건강 위기 등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힘을 잃기 쉽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맡긴 채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삶의 여정을 성찰하며 보다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새로운 전인교육 프로젝트**인 '아이플라토(I-PLATO)'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아이플라토라는 이름에는 인천의 'I', 어린아이의



2026.4. 아이플라토 여정, 강화나들길



'아이, 세계를 향한 'International', 그리고 '철학하다' 라는 의미의 'Plato'가 함께 담겨있다.

아이플라토는 읽고, 걷고, 쓰는 '읽걷쓰' 교육의 삶을 읽어내는 실존적 문해력 증진을 기반으로 하며, 학생이 스스로 성찰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고, 보다 진전된 삶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써가는

**'생각하며 행동하기를 배우는 교육'**을 지향한다.

아이플라토 여정은 학생 한 명이 한 명의 동행자와 1대 1로, 2박 3일 동안 강화도 일대 28km 길을 함께 걷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여정 안에서 학생은 단절, 성찰, 회복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스마트폰, 친구, 가정, 학교 등 익숙한 일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낯선 어른 동행자와 숙식을 함께하며 자연 속에서 걷기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 내면의 이야기와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아이플라토의 성찰 과정에는 정해진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누구도 변화를 재촉하지 않는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 감정, 관계, 삶의 맥락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회복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간다. 따라서 아이플라토 여정은 단순한 문제 수습이나 교정을 넘어, 학생이 자기 발견의 기회를 얻고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다. 아이플라토의 진정한 성과는 **학생이 주체적 사유를 통해 '나다움'에 다가서며 스스로 미래를 조망해 보는 시간 그 자체가** 독특한 경험으로 삶에 남는 데 있다.

아이플라토에 참여하는 동행자의 모습은 이 교육이 지향하는 철학을 잘 보여준다. 동행자는 한 명의 학생을 하나의 세계(a world)로 인정하고, 그 학생만의 개별성에 주목한다. 이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고착적 관점을 벗어나 학생의 특성과 맥락에 맞는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취약성을 지닌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고 지지받는 정서적 경험을 갖게 한다. 낯선 어른 동행자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 경험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정서학습에 못지않은 학습 효과로 남아, 여정 이후 또래 관계와 가족 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이플라토의 동행자는 학생의 내면을 고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리며, 영향력 있는 질문을 통해 학생의 성찰을 돕는다. 학생의 걷는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추는 태도, 문제와 학생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해서 바라보는 태도, 경험 많은 어른이라는 이유로 학생에 대해 쉽게 가정하지 않고 편견 없이 경청하며 질문하는 태도 등이 그 결을 같이 한다.

**아이플라토 여정은 '훈육보다 능동적 회복'을 견지한다.**

여정에서 마주하는 햇살, 바람, 산, 바다, 나무, 들꽃, 갯벌 등 자연물이 학생의 내면을 비추는 메타포(metaphor)가 되어, 학생이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어느새 회복은 소리 없이 시작되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숲길을 걷는 동안 평온한 감정을 되찾았어요.”  
 “핸드폰 없이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살아 있음에 감사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일은 다를 수 있겠다는 설렘이 생겼어요.”  
 “야생화처럼 땅에 내려앉아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우고 싶어요”  
 “동행자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친구들에게 해보고 싶어요.”  
 “혼자라면 걷지 못했을 텐데, 함께 걸어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걸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반응은 아이플라토 여정이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자, 정서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읽어 내면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아이플라토의 지향이자, 인천교육이 추구해 온 읽건쓰 교육의 핵심이다.

아이플라토 교육은 자아 과잉과 소멸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물음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AI 주도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자아를 잃고 표류하기 쉬운 학생들이 본래적 자기로서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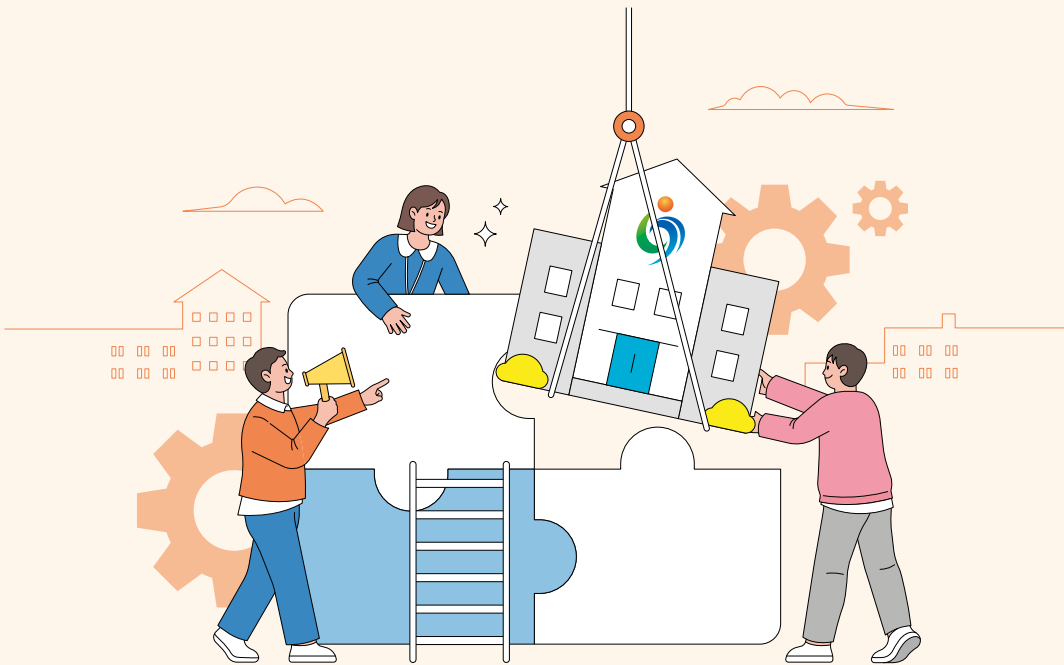
우리는 아이플라토 여정을 통해 생각하며 행동하는 꼬마 철학자의 모습을 마주하며, 소소하지만 분명한 학생들의 변화를 목격한다. 학생들은 걷기 속에서 축적되어져 일어나는 질문을 통해 삶과 세상을 다시 읽어 내며, 그 안에서 발견한 긍정성을 바탕으로 희망적인 삶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써 내려간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아이플라토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나아가 시민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지평의 넓힘을 통해 아이플라토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인천형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더 가까운 교육 서비스, '검단·영종교육지원청' 개청을 향한 첫걸음

김보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 교육지원청 신설이 왜 필요한가요?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와 학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지원청의 체계로는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교육지원청 개청은 여러 행정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3월에 검단과 영종 지역에 '개청추진센터'를 설치하여 조직의 규모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구체화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 필요성 검토 :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 실시
- ❖ 현장의견 수렴 : 검단·영종지역 학부모 간담회 실시
- ❖ 관계기관 협의 :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조직 규모 확정, 관련 규정 정비, 청사 확보 방안 마련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 상황은 교육소식지와 공식 누리집,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이 그리는 미래

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히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2026 인천 교육복지사업'

주현성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나요?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5세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1인당 10만 9천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320-0095)</li> </ul>
2 유아 학비 지원	3~5세 일반유아 (외국국적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공립유치원(1인당 15만원), 사립유치원(1인당 35만원), 어린이집(1인당 35만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li> <li>신청방법: 방문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li> </ul>
3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3~5세 사립유치원 법정지원 대상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1인당 20만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li> <li>신청방법: 방문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li> </ul>
4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공사립유치원 외국국적 3~5세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공립유치원(3세 20만원, 4~5세 22만원) 사립유치원(3세 40만원, 4~5세 51만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320-0095)</li> </ul>
5 유치원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3~5세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1인당 7만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li> <li>신청방법: 재원중인 유치원으로 신청</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li> </ul>
6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3~5세 일반유아 (외국국적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1인당 5만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 * 어린이집은 별도 문의(인천광역시청 032-120)</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li> </ul>
7 유아무상교육비·보육료 지원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4~5세 일반유아 (외국국적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공립유치원(1인당 2만원), 사립유치원(1인당 11만원), 어린이집(1인당 7만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 * 어린이집은 별도 문의(인천광역시청 032-120)</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li> </ul>
8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3~5세 장애유아 (외국국적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공립유치원(외국인 17만원), 사립유치원(내국인 12만 4천원, 외국인 51만4천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li> <li>신청방법: 재원중인 유치원으로 신청</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li> </ul>
9 원외 체험학습비 지원	3~5세 장애유아 (외국국적포함) (사립5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공립유치원(1인당 8만원), 사립유치원(1인당 6만원)</li> <li>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li> </ul>





### 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나요?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비지원	유·초·중·고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통학거리 2km 초과 또는 장애로 인해 도보통학,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600원, 중·고 1,100원, 전공과 및 유아학부모 1,600원, 장애인 콜택시 2,500원</li> <li>- 1일 2회(왕복), 실 통학일수 기준</li> </ul> </li> <li>• 지원방법: 학부모 계좌로 입금</li> <li>•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li> <li>• 문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500-4843)</li> </ul>
2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활동비지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1인당 월 10만원 바우처 지급 또는 학교별 1개 프로그램당 50만원 지원</li> <li>•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학교로 지원</li> <li>•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li> <li>• 문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500-4843)</li> </ul>
3 특수교육 치료비지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1인당 월 16만원 바우처 지급</li> <li>•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 발급</li> <li>•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li> <li>• 문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500-4843)</li> </ul>
4 산업체 도제 현장실습 훈련비 지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1일 1만원</li> <li>• 지원방법: 학생 또는 학부모 계좌 입금</li> <li>•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li> <li>• 문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500-4842)</li> </ul>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특수학교)까지 학생 성장별 맞춤 지원사업을 알아볼까요?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첫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과정)1학년 입학생 *2026년 3월6일 학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li> <li>• 지원방법: 학부모계좌 입금</li> <li>•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9)</li> </ul>
2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여행자보험료	초등학생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보험료 1인당 2,000원</li> <li>• 지원방법: 학교 자체적으로 여행자보험 가입</li> <li>•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li> </ul>
3 초등 방과후·돌봄 맞춤형 프로그램	초등 1~2학년 중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연중 매일 2차시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li> <li>•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li> <li>•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339)</li> </ul>
4 초등 방과후·돌봄 초등돌봄교실	초등 1~6학년 중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오후돌봄교실, 놀품퓨터 운영으로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li> <li>•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li> <li>•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550-1737)</li> </ul>
5 초등 방과후·돌봄 아침이 행복한 학교	초등 1~6학년 중 희망자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 및 학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맞벌이 가정 등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안전한 등교여건 마련 및 배움과 돌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나는 교실) 프로그램 제공형</li> <li>◆ (따스한 교실) 틈새돌봄 제공형</li> </ul> </li> <li>•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li> <li>•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5)</li> </ul>
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중·고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90% 이하 가정,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활용가정자녀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li> <li>•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li> <li>• 지원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지원</li> <li>•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li> </ul>
7 중등 맞춤형 특기적성 교육	중·고등학생 *제외학교: 특목고, 협약형 특성학교, 자율형 사립고, 국립고, 농어촌지역 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1교당 500만원 이내</li> <li>• 지원내용: 맞춤형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지원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지원</li> <li>•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320-0091)</li> </ul>
8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초·중·고등학생 지원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진단검사(1인당 15만원) 맞춤지원(1인당 180만원, 30회*6만원)</li> <li>• 지원방법: 교육청에서 협약기관으로 지급</li> <li>• 신청방법: <a href="#">장기신청</a> 5월 신청 안내 <a href="#">상시신청</a> 인천학습종합클리닉(www.ice-clinic.kr)</li> <li>• 문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320-0060)</li> </ul>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9	난독증 학생 지원	초·중·고등학생 지원 희망자
10	초6·중2·고2 수학여행비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6, 중2, 고2 학생
11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중1, 고1 학생 (타시도 및 국외 1학년 전입생 포함)
12	중·고등학교 체육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13	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	학생성공버스 운영교 중·고등학생
14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생 *제외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고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15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교육비 지원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6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수능원서비) 지원	① 인천 관내, 고등학생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② 인천에 주소지를 둔 타시도, 고등학생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17	자격증 응시 수수료 지원	직업계고 3학년 학생
18	교육급여지원	중위소득50%이하 초·중·고등학생
19	인터넷통신비 지원	특수·초·중·고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20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	초·중·고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 지원금액: 진단검사(1인당 20만원) 맞춤지원(1인당 180만원, 30회기\*6만원)
- 지원방법: 교육청에서 협약기관으로 지급
- 신청방법: **정기신청** 5월 신청 안내 **상시신청** 인천학습종합클리닉(www.ice-clinic.kr)
- 문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320-0060)

- 지원금액: 초6, 중2(1인 25만원 이내), 고2(1인 45만원 이내)
- 지원방법: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7660)

- 지원금액: 1인당 31만원 이내
- 지원방법: 학교 계약업체를 통해 교복구매(현물지원)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4)

- 지원금액: 1인당 7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방법: 학부모 계좌 입금 또는 현물지원
- 문의: 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420-8441)

-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시 무료 이용
- 지원내용: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개발지역 중·고등학생 등교 지원 통학버스 운영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320-0024, 550-1738)
- \* 6권역: 송도, 청라·루원·경서, 검단, 영종, 서창·논현, 부평

- 지원내용: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4)

- 지원내용: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경비(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학교급식비) 실비 전액 지원
- 지원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지원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

- 지원금액: 1인 최대 4만 7천원
- 지원내용: 다음 세 가지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수능 응시수수료/대학입학전형(수시모집) 전형료)/취업자격증 응시수수료
- 지원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관내 재학생** 학교로 신청 **그 밖에** 온라인 신청(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문의: 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420-8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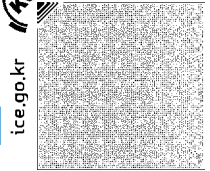
- 지원금액: 1인 최대 4만 7천원
- 지원내용: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응시 수수료
- 지원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
- 문의: 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420-8467)

- 지원금액: 초 50만 2천원, 중 69만 9천원, 고 86만원
- 지원내용: 무상교육제외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지원
- 신청방법: **기존**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신규** 행정복지센터 교육급여 신청 후 바우처 신청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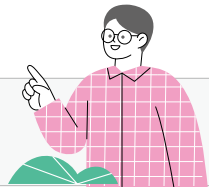
- 지원금액: 1가구당 월 19,250원
- 지원방법: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납부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4)

- 지원금액: 1식당 10,000원
- 지원방법: 바우처(제로페이) 지원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21	졸업앨범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초·중·고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1인당 7만원 범위 내 실비</li> <li>지원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4)</li> </ul>
22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초·중·고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수학여행(초·중 15만원, 고 28만원 내 실비) 수련활동(초·중·고 10만원 내 실비)</li> <li>지원내용: 숙박형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li> </ul>
23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다자녀 가정) 초·중·고 다자녀 가정 학생 (셋째 이후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수학여행(초·중 15만원, 고 28만원 내 실비) 수련활동(초·중·고 10만원 내 실비)</li> <li>지원내용: 숙박형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li> </ul>
24	다자녀 학습준비비 지원 초·중·고 다자녀 가정 학생 (셋째 이후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1인당 20만원</li> <li>지원방법: 바우처(제로페이)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li> </ul>
25	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1인당 500만원 이내</li> <li>지원내용: 희귀난치병 학생 치료비(비급여)</li> <li>지원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li> <li>문의: 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420-8445)</li> </ul>
26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1인당 98만 9천원 이내 지원</li> <li>지원내용: 1형 당뇨병학생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li> <li>지원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li> <li>문의: 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420-8449)</li> </ul>
27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특수·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특수·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4)</li> </ul>
28	무상급식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실제 급식 운영에 소요되는 무상급식비 지원</li> <li>지원금액: 학교급별 평균 급식 단가(예산편성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유: 3,330원, 사립유: 4,030원</li> <li>◆ 초: 3,930원, 중: 4,790원</li> <li>◆ 고: 5,070원, 특수: 5,200원</li> </ul> </li> <li>문의: 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550-1718)</li> </ul>
29	사립 특수학교 취학 편의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립 특수학교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통학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립 특수학교 학생에게 입소 실비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교육재정과(420-6594)</li> <li>※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실비 지원: 2개교, 4명</li> </ul>
30	사립중·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사립중·특수학교 등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농어촌 및 원거리통학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li> <li>문의: 시교육청 교육재정과(420-6594)</li> <li>※ 직영 및 임차버스 운영: 6개교 15대</li> </ul>
31	학생통학버스지원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결정 공·사립고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농어촌 및 원거리통학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li> <li>문의: 시교육청 학교설립과(420-6560)</li> <li>※ 직영 및 임차버스 운영: 16개교 37대</li> </ul>
32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사업비 지원</li> <li>지원금액: 교육취약계층 학생 수에 따른 차등 지원</li> <li>문의: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420-8301)</li> </ul>
33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보험료 지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 3자의 인적, 물질 피해 보상</li> <li>지원금액: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험료, 학생 1인 350원</li> <li>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344)</li> </ul>



# 학생 역량은 UP! 사교육 부담은 DOWN! 인천형 초3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신범철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장학사



항목	주요 내용	비고
대상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	재학 중인 초3 학생은 모두 해당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액	1인당 연 50만원	상·하반기 각 25만 원씩 사용 가능
지원형태	바우처 형태의 이용권	
운영방식	학교 자체 운영 / 방과후드림(간편결제 시스템)	
사용처	학교 안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교재·교구비 등)	
예산	7,725,858,000원	초3 학생(21,640명)의 70% 지원 가능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초등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돌봄보다 교육적 요구가 커지는 초등학교 3학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성장 단계라는 점에 착안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면서도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학기별 25만 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 체육, 예술, 과학, 코딩, 외국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간편결제(제로페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방과후드림’(교육부 주관 방과후학교 간편결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관내 83개 초등학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드림’ 시스템은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부터 결제, 정산, 환불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 처리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있다.

학부모 서비스 측면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용권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한 학교에서는 수강료 납부·환불 내역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과 연계되어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정책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2026학년도 초등 돌봄·교육 통계조사(3월 2차)」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시기(3월 4주 기준) 인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유·무상 방과후·돌봄 참여율은 28.8%였으나, 올해는 6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정책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중단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학교 안에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촘촘한 방과후·돌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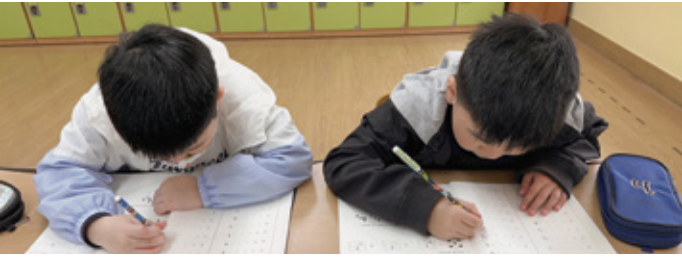




## 기초학력 보장 점·선·면 책임교육,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로 연다

정고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올해 인천 교육 현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기초학력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초등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입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생마다 다른 학습 결손의 원인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담임교사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마중물입니다.



## 선생님의 든든한 파트너,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초학력 네트워크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담임교사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학년 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급별 학습 출발점을 안내하고, 적절한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제작한 수리력 교재로 학급단위 유창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교내 연수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학교 전체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월 1회 네트워크 협의회와 연수를 통해 지도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고, 월 2회 슈퍼비전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 사례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뒷받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학생 한 명 한 명의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맞춤형 진단과 처방

현재 인천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배치된 기초학력 전담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심층 진단하고 정규 수업 중 기초학력교실에서 집중 지도를 실시합니다. 1:1 또는 1:2의 소집단으로 운영되는 기초학력교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천형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만의 차별점은 '함께 만들어 가는 개별화 교육'입니다. 기초학력교실 수업 후 원래 학급의 수업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의 난이도와 과제를 학생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협력 수업과 멘토링을 통해 지원합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화 지역에서는 '거점학교 순회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거점 학교에 배치하고, 인근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학습 결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인근 학교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점·선·면으로 완성되는 인천의 책임교육

우리 교육청은 2026년을 「기초학력보장 점·선·면 책임교육의 해」로 정하고,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전문가인 전담교사가 하나의 '점'이 되어 담임교사와 협력하는 '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학교 전체가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면'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촘촘한 점·선·면 교육안전망은 우리 인천 학생들의 의미있는 학습과 성공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우리 아이의 꿈에 날개를 다는 시간 학부모를 위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인천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김호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인천의 학부모님! 자녀가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 보시며 마음속에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패러다임의 큰 변화 앞에서 부모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부모님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자녀의 진로 설계 과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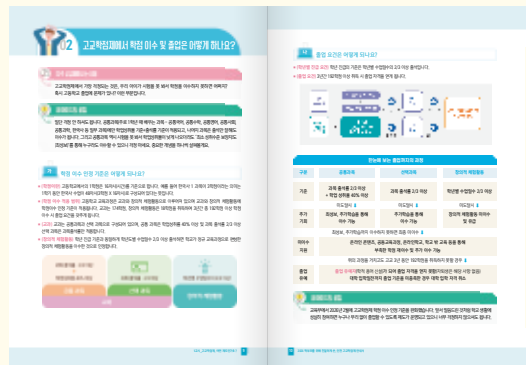
## '학부모를 위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인천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 안내



이번 설명회는 바쁘신 일정으로 현장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학부모님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인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 안내 및 정보 전달을 넘어, 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맞춤형으로 설명하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학점 이수 및 졸업은 어떻게 하나요?', '내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은 꼭 들어야 할까요?',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와 같이 부모님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자녀 지도 꿀팁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현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자녀가 재학중이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용으로 제작된 **'학부모를 위해 친절하게 쓴, 인천 고교학점제 안내서'**도 함께 제공(PDF)하니 천천히 읽어보시며 자녀가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될지, 어떻게 진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그 과정에서 학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해 친절하게 쓴, 인천 고교학점제 안내서」 일부

## 2026 고교학점제 주요 변경 사항: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이 완화되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1년 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서는 2026년초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여러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 기준이 '출석률'만 남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초기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이른바 '최성보(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역시 단순히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보충 지도를 제공하는 체계로 강화되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간소화하되, 실질적인 학습 지원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약속: 전국 최고 수준의 고교학점제 생태계 조성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우리 소중한 인천 학생들의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지역사회 및 대학과 연계한 학습 경험 확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다른 학교와 공동으로 개설해 수업하는 꿈두레 공동교육과정과 인천온라인학교의 개설 과목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도서 지역이나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 온라인 학교 100% 과목 개설 지원, 강사 채용 예산 우선 지원 등을 통해 학교나 지역에 따라 소외되는 일 없이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학부모님께 더욱 체감되고, 인천의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제	참여학교 수	개설 과목 수	참여 학생 수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119교	602 과목	8,000여명
인천 온라인학교	58교	220 과목	3,400여명
교과전담 순회 교사	60교	89 과목	1,800여명
고교-대학 연계 학교 밖 교육(교과형)	7개 대학	9 과목	200여명

학생 과목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청 사업 현황(2026. 3월 기준)

학부모님, 고교학점제는 우리 아이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어른'이 되어가는 중요한 인생의 여정 중 한 장면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 독서국가! 독서인천!!

## 2026년 제3회 읽건쓰 출판전시회 개최

박근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주무관



### 2일간 3,200여 종으로 채운 인천의 읽건쓰 3년

해마다 봄이면 인천에는 책으로 가득한 특별한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읽건쓰 출판전시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이 직접 펴낸 3,200여 종의 도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 인천시청역사에서 첫발을 댄 출판전시회는 2025년 상상플랫폼 웨이브홀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올해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친환경 종이서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책들은 한 해의 사색과 발자취를 기록한 인천 시민들의 자전적 지도이자, 지난 3년간 도시 곳곳으로 번져 온 읽건쓰 문화의 두께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독서국가, 독서인천". 책 읽는 시민이 만드는 도시, 책 읽는 시민이 만드는 나라라는 큰 그림 아래, 학교와 도서관, 가정과 거리에서 피어난 작은 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결을 또렷이 드러냈습니다.



### 독서국가행 열차로 출발을 알린 개회식

개회식은 2026년 4월 17일 오후 2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김영호 국회 교육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도종환 시인과 조희연 독서 국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독서의 가치와 독서공동체의 의미를 짚어 주었습니다. 두 분은 '혼자 읽는 책이 이웃과 나누는 언어가 될 때 독서공동체가 자라고, 그 공동체가 차곡차곡 모일 때 비로소 독서국가의 길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 위원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한 '독서국가·독서인천' 업무협약의 결실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개회식의 마지막은 '독서국가행 열차 출발' 퍼포먼스가 장식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내빈과 학생·시민 대표가 출발을 알리는 종을 울리고 깃발을 흔들자, 정면 화면 속에서는 독서국가행 열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박수와 환호 속에 독서 국가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 북콘서트, 성과공유, AI 체험까지 한자리에

전시 기간 중앙무대에서는 두 차례의 작가 초청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배우이자 소설가인 차인표 작가는 소설 「그들의 하루」를 소재로 '우리를 바꾸는 세 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며, 작은 실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가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소설가 김금희 작가는 북튜버 김겨울 작가의 진행으로 「대운실 수리 보고서」 속 장소들을 따라 읽고 걷고 쓰는 여정을 관객과 나누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독서교육 선도학교(인주중·양지초·부일초)와 읽견쓰 이꿈학교(계산여고·구월여중) 다섯 학교의 활동 성과가 큐브형 벽면 위에 펼쳐졌습니다.

체험존에서는 나만의 북마크 만들기, 독서인천 선언문 만들기, 테이프 드로잉과 함께, 생성형 AI로 그림책 표지를 만드는 디지털 체험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관람객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 AI 시대, 더 깊어진 읽견쓰의 여정

이들간 전시회를 찾은 4,500여 명의 관람객은 책과 사람, 기술과 사유가 어우러진 풍경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쓴 책 앞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남기는 학생, 종이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이웃의 이야기를 펼쳐 보는 시민, AI 화면 앞에서 그림책 표지를 만들며 환호하는 어린이까지, 전시장 곳곳에서는 읽고 걷고 쓰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시가 글을 대신 쓰는 시대에도, 직접 읽고 걸으며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는 일이 왜 여전히 소중한지를 3,200여 종의 책이 조용히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읽걸쓰가 학교를 넘어 도시의 일상으로 깊어지는 동안, 인천의 시민들은 한 권의 책을 쥐고 또 다음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걸을 지키고, 길을 다지며,  
함께 가는 따뜻한 동행  
인천 학생맞춤통합지원

강순애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을 말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교육부는 2026년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들은 학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복지 및 안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게 각 사업별 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복합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타 부서 간 조정과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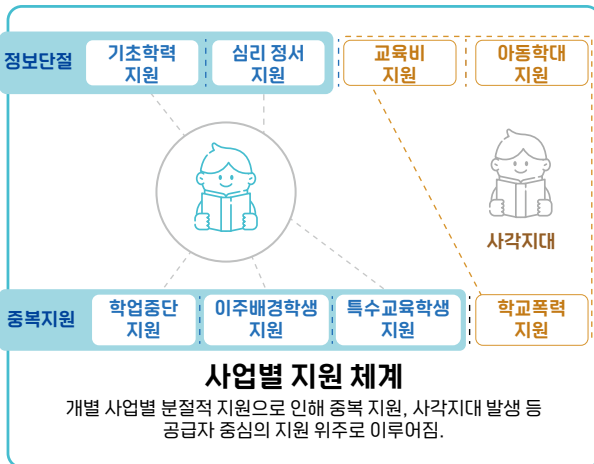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관리자 중심의 학생 진단 및 지원 논의 절차를 마련하여,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기존 교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을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안건 중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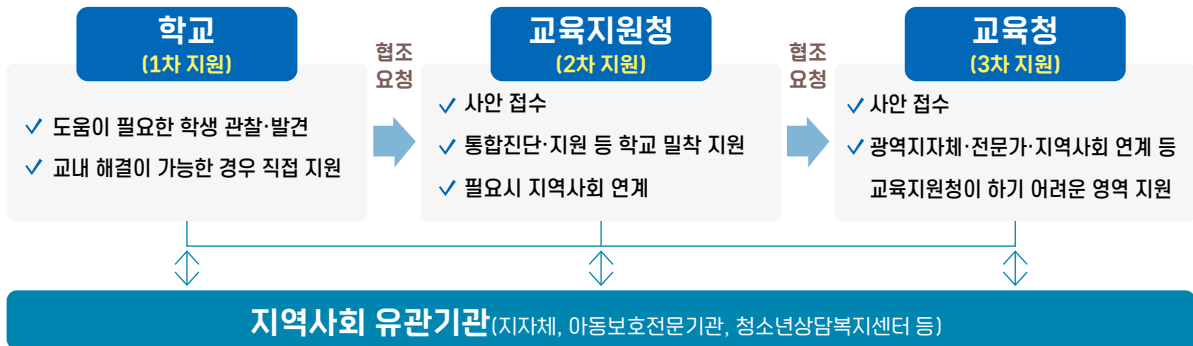
단위학교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접수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 내 유관 사업 조정 및 협력,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기존 ]



### [ 개선 ]





### 모두가 함께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의 지원은 특정 부서나 업무 담당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학생 지원 사업이 아닌 기존의 학생 지원 사업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존중하면서, 분절되어 있던 사업들을 연계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 지원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Q1.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지원 대상(범위)은 어디까지인가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은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단일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지원합니다.

※ 지속적·복합적 어려움 등 사유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절차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논의합니다.

**Q2.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지원은 지양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호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1 상담 및 설명  
: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재 어려움과 지원의 목적, 내용, 기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 형성 과정을 거칩니다.
- 2 학교 내 전문인력과의 협력  
: 보호자가 심리적 부담이나 오해로 인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 내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신뢰 형성을 지원합니다.
- 3 교육(지원)청 전문기관과 연계  
: 추가적인 설명이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학생 지원 관련 센터 등과 연계하여 보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학교와 가정이 함께 빛나는 아이들의 내일, '학부모 학교참여'의 힘

임선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주무관



인천의 학교 현장은 이제 교사들의 가르침을 넘어,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재능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교육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은 학교와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단순히 학교 행사를 돕는 봉사를 넘어,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협력적 동반자'로 참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학부모 참여를 통해 학교는 가정의 목소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학부모님은 학교의 교육 방향을 깊이 이해하며 공교육에 대한 단단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결국 학부모가 함께할 때, 교육은 더욱 깊어지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학부모 학교 참여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활동 주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 ❖ **학부모회 및 동아리 활동:**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부모 자치활동을 기획하거나,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연속적인 동아리 운영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 ❖ **교육기부:** '책 읽어주는 학부모 교실', '학생 진로·직업 체험 지원' 등 학부모의 전문 역량을 학교 현장에 직접 나누며 학교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 ❖ **다양한 주체의 참여:** 아버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유대감을 강화하는 '아버지 학교참여', 놀이 중심의 교육 기부인 '학부모 놀이교육' 등 참여 주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 ❖ **정책 및 지역 연계:** '독서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 하거나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합니다.



### ‘학부모 읽견쓰 어울림마당’, 우리 학교의 활동이 모두의 지혜가 되는 곳

지난해 10월에 열린 ‘학부모 읽견쓰 어울림마당’은 각급 학교가 현장에서 일구어낸 소중한 학부모 참여의 경험을 한데 모아, 인천 교육의 우수 모델로 확산하고 공유하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의 장’이었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학교만의 독창적인 활동 노하우를 이웃 학교들과 나누며 학교참여의 실질적인 결실을 상호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감동의 현장:**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아버지 밴드인 ‘파파밴드’와 학생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선보인 연합 공연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벅찬 울림을 주었습니다.

❖ **성장의 증거:** 학부모들이 직접 저자로 참여한 ‘출판 전시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깊이를 더하는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우뚝 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지식의 확산:** 이날 배부된 ‘사레니눔집’은 단위 학교의 우수 사례를 인천형 학교참여의 표준 모델로 제안하며, 각 학교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특색 있는 활동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 3월 학부모 연수, “학부모가 직접 쓰고 그려가는 학교 자치의 지도”

지난 3월, 530여 명의 학부모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연수 현장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학교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자치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행사의 진행을 맡아 동료 학부모들의 눈높이에서 실무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냈으며, 학교 참여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강사가 자신만의 생생한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 현직 교감 선생님은 ‘학부모와 학교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는 자치활동이 원활히 운영 되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학부모는 교육과정을 신뢰하며 각자의 소중한 재능을 보태주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이 자치활동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학부모 전문 강사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2026년, 계획의 내실화와 지역 협력을 통한 체계적 도약

올해 인천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은 주민배심원단의 정책적 제안과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평가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이를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연결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업의 목적성을 강화한 계획 수립:**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교육적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학부모 활동이 구체적인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다졌습니다.

❖ **'우수 활동교' 차등 지원:** 계획의 창의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우수한 계획이 내실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및 확산:**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학교 내 활동을 넘어 자원봉사센터, 주민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확장됩니다. 아이들의 배움터가 마을 전체로 넓어지며 학부모 참여의 사회적 기여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 **투명한 정보 공유로 정책 신뢰도 제고:** 사업 계획, 예산 집행 내역, 활동 결과 등을 인천학부모지원센터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성숙한 학부모 자치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나아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부모 학교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미래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학교의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아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교라는 문을 두드리 보세요. 여러분이 참여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 인천 교육의 새로운 내일이 시작됩니다.

# ◇ 교육 가족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도연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주무관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청렴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학교 안에서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Q1.**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A1.**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평범한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네, 위원회 활동을 하신다면 적용됩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님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 사인(私人)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일상생활이 아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서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이 준용됩니다.

##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Q3.**

선생님과 면담할 때, 가벼운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3.**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4.**


안 됩니다. 이 역시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


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  담임 선생님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5.**  **안 됩니다.** 현재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또는 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교장, 교감 선생님께 학부모회에서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나요?


**A6.**  **안 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7.**  작년 담임 선생님(이전 학년)께는 감사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A7.**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이전 학년 선생님의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해당 선생님이 동생의 담임·교과 담당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


나므로 선물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8.**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학교에서 학부모 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지만,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식사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Q9.**  학부모가 선생님께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면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9.**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금품을 받은 선생님만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그 제공자(학부모 등) 역시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생님들은 청탁 금지법에 따라 이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부담스럽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의 마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해주세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모두의 약속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인천경명초등학교 「교육활동 보호의 달」 운영

김정아 인천경명초등학교 교감



## “교육활동 보호”를 모두의 약속으로 만들다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들의 배움이 살아납니다.”*

5월은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이다. 인천경명초등학교는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을 맞아 학교·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달」로 정하고 '교육활동 보호의 달 선포식'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교사의 교육활동만을 보호하자는 의미를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 학부모의 신뢰와 협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관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보호는 특정 구성원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학교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경명초등학교는 학부모회 및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라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교직원·학부모회·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는 선포식을 기획하였다.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에서는 선언문의 문구를 함께 검토하고 참여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학급별 존중 교육과 사전 활동을 운영하였다.



선포식 당일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가 함께 교육 활동 보호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학생 대표는 “친구들의 배움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학부모 대표는 “학교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함께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직원 대표 또한 “학생의 성장과 안전한 수업 환경을 위해 책임 있는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선언문 낭독 후에는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가 준비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존중합니다”, “함께 지킵니다”, “배려로 만드는 행복한 교실”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대를 들고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를 함께 외쳤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학교를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지켜 나간다”는 주인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존중 캠페인”

인천경명초등학교는 선포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교육활동 보호가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교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주간의 캠페인 활동을 운영하였다.

가장 중심이 된 것은 학부모회 주관, 학생자치회 참여로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가 함께하였다는 사실이다. 학부모회에서는 등굣길에,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아침 활동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해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운영하였다. “존중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웃는 교실”, “친구의 배움도 소중해요” 등의 문구를 직접 제작해 학교 곳곳에 게시하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교육활동 보호 선언문 서명운동이었다. 중앙 현관에 설치된 서명판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서명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참여하던 학생들도 친구들의 서명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참여했고, 학부모들도 학교 방문 시 자녀와 함께 서명에 동참하였다.

한 학생은 서명 후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그냥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서명을 하면서 한번 더 친구도 선생님도 존중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예전에는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들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선언문을 읽고 서명 하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기 위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교육활동 보호, 학교문화가 되다

교육활동 보호는 특정 시기에만 강조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의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인천경명초등학교는 이번 「교육활동 보호의 달」 운영을 계기로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학생 자치회 중심의 캠페인 활동, 학부모와 함께하는 존중 교육, 학급별 실천 활동 등을 이어가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경험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학교는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마음이 모여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인천경명초등학교의 작은 실천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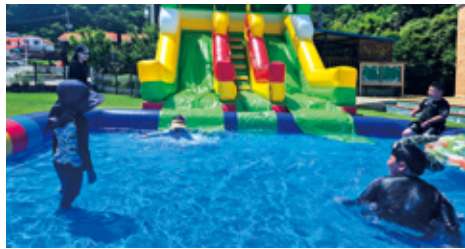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 섬마을 유치원의 여름이야기 속으로!

김세은 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병설유치원 교사



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병설유치원은 마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연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관, 주민, 자연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 현장체험학습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관람'

1967년 섬마을을 배경으로 한 「섬마을 선생님」 영화로 잘 알려진 아름다운 섬, 대이작도에는 우리 지역의 자연을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해양생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작분교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유아들은 함께 대이작도 해양생태관을 방문하여 해양생태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섬의 지형을 축소해 구현한 모형을 살펴보며 “우리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 표본을 관찰하며 바다 속 생명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고,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배움을 이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디어 아트 체험에서는 빛과 영상으로 표현된 바다에 몰입하며 “진짜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등 감탄과 즐거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관람을 통해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가 함께하는 '이작 워터파크 개장'

“와우~ 여름이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이작 워터파크'가 개장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연계교육의 일환으로 물놀이 체험활동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교육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마을 주민의 협조로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아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교육공동체의 지도 아래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워터슬라이드를 타며 “와! 너무 재밌어요!” 라고 환호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현장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튜브 타기, 낚시놀이, 물총 놀이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형과 동생이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아이들이 함께 웃고 뛰어놀며 배려와 협력을 경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름 물놀이의 즐거움 속에서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는 기쁨과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꼈습니다.

### 우리 섬 특산물 '블루베리 수확하기'

우리 지역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직접 블루베리를 수확해보는 특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바라보며 기대와 설렘 속에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매를 따보며 “이게 우리가 먹는 블루베리예요?”라고 묻는 등 호기심 가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구니에 블루베리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아이들은 뿌듯함을 느끼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맛보며 “시원하고 새콤달콤해요!”라고 표현하는 등 자연이 주는 먹거리에 대한 감탄도 이어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수확하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몸소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읽고, 걷고, 쓰며 지역의 가치를 발견한 '강화 Vengers' 이야기

# 가치 담은(談恩) 강화 Vengers(벤저스)의 터·무늬 있는 탐험

진수정 인천연성초등학교 교사



## 가치 담은 강화 Vengers란?

강화의 터(광성보)와 무늬(화문석)를 탐험하며 선조들이 남긴 가치를 함께 발견하고, 그 고마움을 세상에 전하는 프로젝트



*“선생님, 강화도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 한 아이가 조용히 건넨 말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들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렀다. 아이에게 강화도는 더 이상 교과서 속 한 단원이 아니었다. 직접 읽고, 걸으며, 자기 손으로 기록한 살아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4학년 사회 시간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르치며 늘 고민이 있었다. 아이들이 문화유산의 이름과 특징을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마음까지 느낄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배우는 사람'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가치 담은(談恩) 강화 Vengers의 터·무늬 있는 탐험**'이었다. 아이들은 강화의 '용기와 '숨씨'를 찾아 나서는 작은 탐험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탐험의 중심에는 인천교육이 강조하는 '읽걷쓰'가

있었다. **읽고(Read), 걷고(Walk), 쓰는(Write)**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지역과 연결되어 갔다.

## 읽기(Read) : 사진에서부터 시작된 질문

첫 시간, 교과서를 바로 펼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앞에 몇 장의 사진을 놓아 주었다. 전통 화문석 사진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화문석 소품, 신미양요 당시의 광성보 사진과 지금의 평화로운 성벽 풍경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무늬는 왜 저렇게 복잡해요?” “광성보는 왜 바닷가에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See-Think-Wonder 활동으로 시작한 수업은 어느새 질문으로 가득 찬 교실이 되었다. 아이들의 질문을 모아 보니 자연스럽게 세 가지 탐구 방향이 만들어졌다. 화문석과



광성보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강화의 지형은 사람들의 삶과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는지였다. 아이들은 질문을 품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구글 맵과 구글 어스로 강화도의 지형을 살펴봄에 갯벌과 해안선,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확인했다. 화면을 확대하고 지도를 돌려 보던 아이들이 말했다.

*“아, 그래서 강화도가 서울을 지키는 곳이었구나.”*



교과서 속 '요충지'라는 단어가 아이들의 눈앞에서 실제 공간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생성형 AI인 Gemini도 탐구 과정에 함께 활용했다. 아이들은 화문석 장인, 광성보 병사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이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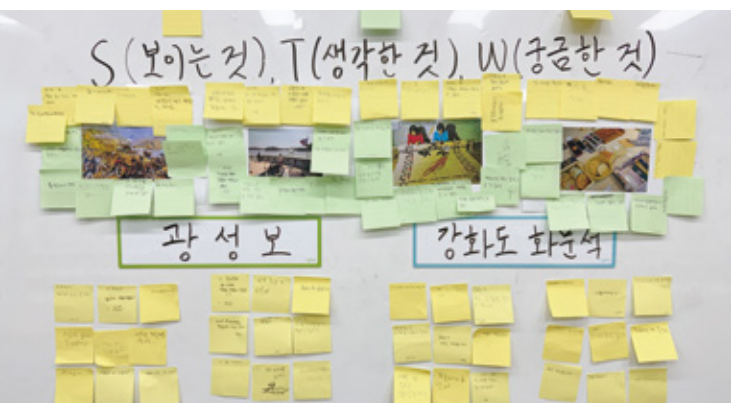
*“왜 힘든데도 화문석을 만들었나요?”*

*“전쟁터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물론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국가문화유산포털 자료와 영상 자료를 다시 찾아 읽고 비교하며 내용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검색하던 아이들이 점점 “이건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질문을 바꿔 보면 어떨까요?”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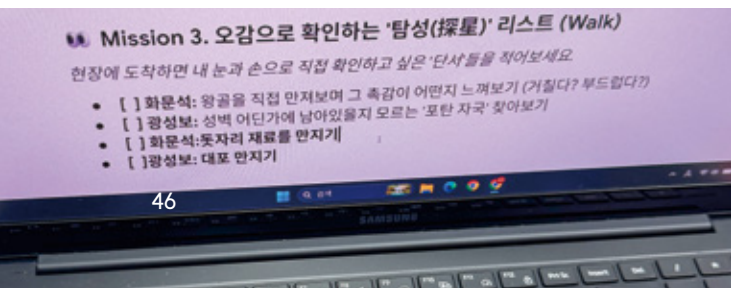
아이들은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며 읽어내는 힘을 키워 가고 있었다. 생성형 AI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질문을 더 넓고 깊게 탐색하게 만드는 '생각의 발판'이었다.



### 걷기(Walk) : 강화의 바람 속에서 역사를 만나다

교실에서 충분히 질문을 품은 뒤, 아이들은 각자의 탐구 질문이 담긴 구글 문서를 출력해 강화도로 향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의 강화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화문석 체험장에서 아이들은 왕골을 직접 만져 보았다. 손끝에 닿는 촉감은 사진으로 보던 것과 전혀 달랐다. 아이들은 장인께 질문을 쏟아냈다.



#### Mission 3. 오감으로 확인하는 '탐성(探星)' 리스트 (Walk)

현장에 도착하면 내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단체'들을 적어보세요

- [ ] 화문석: 왕골을 직접 만져보며 그 촉감이 어떤지 느껴보기 (거칠다? 부드럽다?)
- [ ] 광성보: 성벽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포탄 자국' 찾아보기
- [ ] 화문석: 돛자리 재료를 만지기
- [ ] 광성보: 대포 만지기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려요?”  
 “무늬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왜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하세요?”

장인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쓰는 사람이 오래 잘 써 주면 그게 가장 보람 있지.” 그 말을 듣던 아이들이 조용히 왕골을 다시 만져 보던 모습이 기억난다. 화문석은 더 이상 교과서 속 특산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시간과 손끝, 삶이 담긴 문화가 되어 있었다.

광성보에서는 학생교육원의 미션형 오리엔티어링 활동이 이어졌다.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들은 성벽을 따라 걸었다. 실제 대표를 보고, 성벽을 만지며 전쟁의 흔적을 눈앞에서 확인했다. 한 아이가 성벽을 손으로 쓸어 보며 말했다.

“여기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이 역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무명용사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짧은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강화의 바람을 맞으며 아이들은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을 조금씩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읽기에서 시작된 질문은 걸음이 되었고, 걸음은 다시 마음속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 쓰기(Write) : 발견한 가치를 자신의 언어로 남기다

강화에서의 걸음은 학교로 돌아와 다시 ‘쓰기’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에 정리하고, 탐구 학습지를 펼쳐 보며 자신이 발견한 강화의 가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구글 사이트, Google Vids 영상, 직접 만든 탐험책 등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이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고, 친구들은 교사가 제작한 평가 웹 앱을 통해 동료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남겼다. 교사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개별 피드백을 작성했다.

평가 결과와 피드백은 출력하여 가정으로 보냈으며, 아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다시 수정·보완하였다. 발표를 마친 한 아이가 친구들의 피드백을 읽어 보며 “다시 고쳐 볼래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결과물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점점 자신의 작품을 ‘더 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종 완성된 작품은 교사가 제작한 웹 앱 갤러리에 게시하여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였다. 아이들은 자신의 배움이 교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험 속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 ‘읽견쓰’가 남긴 것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은 읽고, 걸으며, 썼다. 자료를 읽으며 질문을 만들고, 현장을 걸으며 마음으로 이해했으며,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쓰며 배움을 삶 속에 남겼다.

아이들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자료를 함께 모으고, 생각을 기록하며, 자신의 배움을 친구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갔다. 기술은 아이들의 생각을 대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깊이 읽고, 더 넓게 걸으며, 더 의미 있게 기록할 수 있도록 곁에서 길을 밝혀 주었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아이들은 말했다.

“강화도에 또 가 보고 싶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문화유산을 보면 그냥 안 지나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읽견쓰는 단순한 활동의 순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아이들의 배움 방식이라는 것을. 읽고, 걷고, 쓰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지역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 발견은 다시 아이들의 삶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공감

# 그 계절 우리는

장대한 구월중학교 교사



작년 3월, 첫 제자들을 만났다. 굳어 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베테랑인 척 여유로움을 연기 했지만, 사실 나 또한 그들과 같은 1학년이었다. 학기 초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한 탓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자주 일어났다. 정신없던 3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라는 씨앗 위로 라포(rapport)가 토양처럼 천천히 쌓여가는 것이 느껴졌다. 관심으로 빛을, 애정으로 물을 주니 점차 신뢰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비로소 33명의 아들이 생긴 기분이었다.

학생들은 아직 여물지 않은 한 줌의 열매를 하나 둘, 조심스레 내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다.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친구와 잘 어울릴 자신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고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속에 있던 불안은 다양한 색을 띠었다. 하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내려주지는 못했다. 줄 수 있었던 것은 경청과 공감, 경험뿐이었다. 그럼에도 토양은 더 두텁게 다져졌다.



만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첫 스승의 날. 기대하지 않는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사실은 바라고 있었다. 임용시험 공부를 하면서 질리도록 상상했던 오늘이었다. 나만의 동기부여 버튼이었을까. 놀랍게도 조화를 들어가니 교실 곳곳이 아이들의 마음으로 빼곡했다. 아침 일찍 등교해 칠판을 꾸미고 편지를 쓰고 풍선을 불고 붙였더랬다. 아직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떤 담임선생님인지도 잘 모를 텐데 대가 없는 감사함을 표현해 주었다.

“나의 롤모델은 장대한 선생님이다” 주현이가 진로 수업 때 작성한 문장을 담당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셨다.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라니. 기뻐다. 지금도 가끔 그 문장을 보면 묘한 감동이 느껴진다.

주현이는 통합 학급 친구의 또래도우미로 지원했다. 지원 사유를 묻자, “친구를 돕는 것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합 학급 친구를 살뜰히 챙겨주었다.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티 내지 않았다. 주현이의 순수함과 성숙함이 기특하고 감사했다.

주현이가 2학년이 된 올해도 종종 복도에서 마주하면 우리는 말없이 기분 좋게 웃는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또 다른 통합 학급 학생과 함께였다.

그땐 몰랐지만, 첫 제자들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각이 날 것 같다. 복도에서 마주하면 괜스레 애뜻하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그들에게도 내가 그런 담임선생님이었길 바라며, 오늘도 씨앗 위로 물과 빛을 머금은 새로운 토양을 쌓아 나간다.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문화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인천광역시교육청-오세올라 카운티 교육청 교육 파트너십 간담회



콜롬비아 교원 및 학생 대상 '시 디지털 교육' 초청연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



결대로자람학교장 세미나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제1회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제10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초등학교 수영대회



제45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훈·포장 및 표창장 수여식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아직 모르시나요?  
한발 빠른  
인천교육소식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N blog



[blog.naver.com/icehongbo](http://blog.naver.com/icehongbo)

YouTube



@ice-edutv

Instagram



@icesns





Google Play



App Store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보이스아이는 종이 인쇄물에 인쇄된 코드정보(바코드)를 이용하여 인쇄물 정보를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용 어플입니다. 구글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